

# 北은 대답없는데, 정부는 “보낼 준비”… ‘옥수수 1만t’ 미스터리

정부가 북한에 통보한 ‘옥수수 1만t 지원’ 제의를 놓고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측이 북측에 옥수수를 주겠다고 한 지 3일로 9일째이지만 북한에선 답이 없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이날 “(옥수수 지원을 위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번 주 중 옥수수 지원비용 40여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쓰기 위한 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부적으로는 중국에서 옥수수를 구입한 뒤 선박으로 북한의 특정 항구에 보낼 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에 (응답을 요구한다)” 추가 통지문을 보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옥수수를 받을지 추가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준비부터 하는 것이다. 북한은 작년 5월 우리측의 옥수수 5만t 지원 제의를 한 달 만에 거부했었다. 그러나 당시 통일부는 북한의 답을 듣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지원 준비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천 대변인은 “(옥수수) 지원 과정에서 연락관 접촉 등 (북측과) 실무적 접촉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 의사를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받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옥수수부터 사놓고 어떻게 받아갈지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수상한 최근 남북관계		
10월 12일	북한에 임진강·적십자 실무회담 제의	
13일	북한 하루 만에 수용	
14일	북 “임진강 사망 사건 유감”	
15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베이징 도착	
16일	북 인도적 지원 요청	
18일	미 언론 “김정일, 이명박 대통령 초청”	
20일	김양건 부장 평양 귀환	
21~23일	“남북 정상회담 위한 비밀 접촉” 보도	
26일	북한에 옥수수 1만t 지원 통보	

## 청와대 홍보라인 고위 당국자

“당초 북한이 요구한 건 10만t”, “우리가 1만t 주겠다고 하니 깜짝 놀라”

## 통일부

“북한이 얼마를 달라고 한 적 없다”, “북한과 사전협의한 적 없다”

제외한지 9일째, 北은 “…”

청와대·통일부 설명도 달라

‘비밀채널 통해 합의’ 의혹

고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옥수수 지원을 둘러싼 청와대와 통일부의 설명이 달라 의혹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청와대 홍보라인 고위 당국자는 지난 달 28일 한 비공개 세미나에서 “당초 북한이 요구한 건 10만t이었다. 우리

가 1만t을 주겠다고 하니 북한이 깜짝 놀라더라. 북한이 할 수 없이 받은 거다. (북은) 우리가 옥수수를 나눠줄 특정 지역까지 거론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펴썩 뒀었다. 지난달 16일 남북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다”는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양이나 품목은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와 통일부의 말이 다른 이유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통일부는 “청와대에서 해명한다고 했는데…”라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이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도 적십자가 아닌 별도의 비밀 채널을 통해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남북은 10월 12일 우리측의 임진강·적십자 실무회담 제의→13일 북한 수용→14일 북한의 임진강 사고 ‘유감’ 표명→15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베이징 도착→16일 적십자 실무접촉(북, 인도적 지원 요청)→18일 미국 언론 ‘김정일, 이명박 대통령 초청’ 보도→20일 김양건 부장 평양 귀환→26일 북한에 옥수수 1만t 지원 통보 등 숨 가쁜 일정을 보냈다.

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

동아시아研 ‘새로운 韓·美동맹’ 세미나

## “韓·美동맹 토대로 뜨는 중국 품어야”

中, 6자회담 실패면 큰 손해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하는 시대엔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을 품는 대전략이 있어야 한다.”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고려대 교수)은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이숙중) 주최 ‘변화하는 세계와 새로운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제정치 상황을 ‘미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미국 없이 되는 일도 많지 않은’ 상태로 규정한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는 해(미국)’를 대체할 수 없다면 ‘중국이 거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G20 같은 새로운 다자 포럼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G20 회원국 사이를 잇는 도우미 역할을 하면 부가가치가 있는 국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다.

토머스 크리스텐슨 프린스턴대 교수(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주한 미군 철수를 위한 연막처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이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릴 소지를 줄이고, 가족을 동반할 수 있게 하는 등 주한미군의 부담을 줄여주는 몇 가지 조정만 해도 더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왼쪽)과 토머스 크리스텐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가 ‘변화하는 세계와 한·미동맹(동아시아연구원 주최·평택시 후원)’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제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한국이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재진입과 경제 병력을 파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이 미국을 위해 또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같이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은 처음부터 글로벌(global)한 성격이었다”고 했다.

중국 전문가인 크리스텐슨 교수는 “북핵 6자회담이 실패하면 중국이 큰 기회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동북아에서 리더십은 물론 전통

적 우방인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나 “북핵문제가 국경문제 등 갈등요소가 많은 동북아에서 다자 논의를 성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조지타운대 교수)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매우 조심스러워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라 협상을 서둘러 시작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인선 기자 insun@chosun.com

## 기무사령관 ‘北, 軍컴퓨터 해킹’ 시인

“보안 시스템 안전하지 않다”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3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북한 해커 부대가 육군 3군사령부를 해킹해 3군사령부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암호를 빼내갔다는 월간조선 11월호의 최근 보도를 시인했다고 국감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김 사령관은 “해킹당한 컴퓨터는 3

군사령부 화학과장의 컴퓨터였으며 화학과장이 육사 총동장회 사이트에 접속할 때 컴퓨터에 이미 침투해 있던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화학과장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유출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또 “현재 군 내부의 보안시스템이 북한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월간조선은 북한이 해킹한 아이디

와 패스워드를 이용,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가 구축한 ‘화학물질 사고 대응 정보 시스템(CARIS)’ 정보를 빼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700여개 업체와 기관 정보 등 CARIS에 있는 2000여건의 국가기밀을 빼내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무사 측은 3군사령부 화학과장 컴퓨터에 연결된 외부 인터넷망은 군 작전에 사용돼 최고의 보안이 요구되는 군사망(軍事網)과는 구분이 돼 있으며 이번에 군사망까지 해킹당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무사 측은 “북한의 해킹기술 발달로 군 내부의 인터넷망이 침투당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보안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측은 또 군 내부에서 군사망과 접속할 때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이용할 경우, USB에 침투된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군사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체크해 통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혁 기자 jhchoi@chosun.com

알립니다 event.chosun.com

내일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 국제세미나

조선일보 북·중 전략문제연구소(SINC)는 인천대 중국학연구소와 공동으로 5일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내셔널리즘의 극복과 한·중·일 협력방안의 모색’ 국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앞으로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 이 형성할 동아시아 공동체 경제 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역에서 개최되는 이 세미나에는 뤼젠보(羅建波)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히로카와 히토시(平川均) 일본 나고야대학 교수, 박정동 인천대 중국학 연구소장이 참석

해서 한·중·일 삼각 토론을 벌입니다.

토론에는 김영대 유한대학 총장(전 산자부 장관),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전 KIEP 원장),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강영지 일 동아시아총합연구소 소장, 박승준 조선일보 SINC 소장이 참석합니다. 많은 방청을 바랍니다.

▲일시=2009년 11월 5일 오전 9시 30분  
▲장소=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인천대 컨벤션센터  
▲연락처=(02)724-6522, (032)835-4262

# 성신에게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중국 하얼빈역 그 역사현장에서 성신인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함과 의로움을 기리며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중국 상해 임시정부청사,

독도 방문에 이어진 4번째 역사현장체험 프로젝트!

성신인은 역사와 대화하며 나라사랑은 물론

민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가고 있습니다

성신인에게 역사는 오늘과 소통하고

미래와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세상과 소통을 잘하는 여성 리더,

성신여대에서 크고 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2010학년도 수시 2차 모집

•인터뷰 접수  
2009.11.17(화) 10:00 ~ 11.20(금) 17:00까지

•서류 제출  
2009.11.17(화) ~ 11.23(월) 17:00까지 (우편 또는 방문)

•합격자 발표  
2009.12.12(토) 예정

저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SUNGSHIN.ac.kr



세상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빛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